

제5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공모 당선 작품소개

이 글은 당협회가 '89년도 우유 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5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7,712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佳作 5편, 입선작 10편, 장려상 30편 등 총 48편이 당선되어 지난 호에는 최우수작및 우수작 2편을 소개하였고 이번호에는佳作 4편을 소개하며 잔여 입선작, 장려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佳作



꼭지와 우유

전북 완주군 삼례중앙 국민학교
6의 2 이정경

어젯밤 빗소리에 놀라 온 식구가 벗가마니를 치우느라 법석을 떨다 그만 늦잠이 들었다. 늦잠 덕택에 학교길이 바빠서 뛰다 걷다 발걸음을 서두르는데 어느새, 꼭지가 앞에 섰다. 뒤에서 풀랑풀랑 따

라오며 발걸음을 더디게 하였다.

‘논길을 벗어나면 차가 많고 길도 잃어 버릴텐데.....’

걱정이 되어서,

“집으로 가!”

하고 소리치며 손짓을 해도, 자꾸 꼬리치며 따라왔다. 나는 안타깝고 속상해서 우리 할머님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돌을 던져도 뱅뱅 주위를 돌다 또 따라왔다. 할수없이 책가방을 길가에 놓고 꼭지를 안아 집에 붙들어 매고 마라톤 선수처럼 계속 쉬지않고 달려갔지만, 예상했던 대로 역시 지각이었다. 지각한 벌로 나는 들췌시간이 끝난 쉬는 시간에 놀지도 못하고 우리반 아이들의 우유를 타다 나누어 주는 우유 당번을 해야겠다.

그러나, 나는 이 우유 당번이 싫은게 아니라 즐겁기만 했다. 우유는 우리 꼭지를 살려준 꼭지 엄마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꼭지란 놈은 나와 우유를 계속 떨어 질수없게 하였다.

우리 강아지 꼭지는 꼭 젖소를 닮은 얼룩무늬 바둑이다. 지난 여름, 꼭지 엄마 위리가 꼭지 5형제를 낳아놓고 시름시름 앓더니 1주일도 채 못되어 죽어버렸다. 아직 눈도 뜨지못하고 엄마 찾아 킁킁대는 어린 강아지 다섯마리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팠다.

하나를 잡아두면 또 한마리가 앞도 못보는 것이 기어나오고, 잠깐 비위두면 빗물에 젖어서 새앙쥐 같이되어서 우리 식구 모두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불쌍하다고 보살피던 오빠들의 손길도 지칠대로 지친 어느날, 할아버지께서

“다 내다 버려!”

라고 속상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난 할아버지의 속 마음을 알것 같아서 꼭지 다섯형제를 내가 맡아 기르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으로 타온 우유를 먹지않고 젖병에 담아 꼭지부터 차례로 먹였다. 잠깐 사이에 끝이 높은 빈 젖꼭지만 빨게되어 우유를 더 못먹이는 마음은 아프기만 하였다.

시원하게 잠자리를 마련하고 정성껏 보살폈지만, 모두 제 엄마결로 가버리고 끝내 꼭지만 남게 되었다.

그날 나는,

‘우유나 실컷 먹었으면……’

하는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흘러 나왔다. 단 한마리

만 살아 남아 젖병 꼭지만 보면 줄랑줄랑 따라다녀서 그 이름이 꼭지가 되었다.

여름내 우유를 끓여 먹이느라 우리 동네에 딱하나 밖에 없는 구멍가게에 우유를 사러가면, 가게아저씨는 웃으시며

“꼭지 엄마 왔어?”

하고 놀리셨다.

동네 사람들도 나만 보면,

“꼭지 엄마!”

라고 놀려 댔지만 난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눈에서 농약을 치시던 아저씨도 땀방울에 타는 목을 우유로 적시다 나만 보면 마시던 우유를 남겨주시며,

“이거, 꼭지 먹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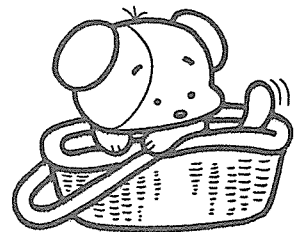
하며 내주셨고, 밥 매던 아주머니들도 새참으로 내온 우유를 남겨 주셨다.

꼭지는 이렇게 어느새 나의게, 우리집 개만이 아닌 온동네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 이젠 내가 안아 올리기도 꽤 힘이들 정도로 토실토실해졌다. 지금도 가끔 어른들은 빈 우유봉지를 들고 나만보면 꼭지 갖다 주라고 놀려대지만, 그때마다 난 어른이 된양 빠지게 되고 가슴 부듯하기만 한것은 우유 덕분에 꼭지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는 먼저간 꼭지 4형제가 생각나 불쌍한 마음에,

‘우유만 많이 있었어도 죽이진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용돈을 절약했으면 우유를 더 살 수 있었을 걸……’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이따금 떠오르곤 한다. 난 그때마다 이 다음에 꼭 목장 주인이 되어 우유를 많이 팔수 있는 소를 길러 신선한 우유를 많이 많이 짜서 필요한 사람이나 동물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나의 건강과 우유

경북 영덕군 야성국민학교
2의 1 심 나영

내 동생 가영이예요. 띠가 돼지 띠인데요. 우리 엄마도 돼지 띠인데요. 나는 개띠랍니다. 아빠는 나를 보며 개띠 중에서도 10년은 못 먹고 굶은 빼빼 마른 띠라고 놀려요. 나는 내가 보아도 정말 깡 마른 몸을 가진 아이입니다. 나는 목욕을 갈 때가 가장 무서워요. 목욕을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좋아하는데요. 목욕탕에 가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깡 마른 몸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무섭고 슬퍼서 자주 옵니다.

내 동생 가영이예요 자기 별명처럼 몸이 매우 통통해요. 아무 음식이나 주는데로 잘 먹고요. 특히 우유를 아주 좋아해요. 나는 엄마가 우유를 주시면요 거의 다 남기는데요. 내 동생 가영이예요 지금까지 내가 남긴 우유를 한 번도 받아먹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우유가 싱거운데 내 동생은 아니래요. 내 동생은 가리는 것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생긴 별명이 깡패랍니다. 나는 내 동생이 부러운데요. 동생처럼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에는 우유에다가 초콜렛을 타 달라기도 하고요. 설탕을 타 달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자꾸만 더 빼빼 말라가는가 봐요. 운동회를 하면 늘 꼴지로 처지고 남과 어울려 놀지도 못해요. 거울은 나를 볼 때마다 울며 찡그려요. 나는 거울을 보는 것이 무서워 졌어요. 그러던 어느날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탔는데요 내 옆자리에 5살 쯤 되어 보이는 남자 아이가 우유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나는 아직 그렇게 우유를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내 동생 가영이보다 더 맛있게 먹었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쪽쪽 빨아 먹는 것이 어찌나 보기가 좋은지 나까지 목안에 침이 넘어갈 정도였어요.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먹기 싫으면 얼굴을 찡그리는 버릇이 많았는데요. 나보다 어린 아이가 음식을 웃으면서 먹는 것이 너무나 예쁘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부끄러웠어요. 나는 차에서 내리자 말자 엄마를 졸라서 우유 한 병을 샀어요. 설탕도 넣지 않고 초콜렛도 넣지 않은 우유였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처럼 웃으면서 우유를 마셔보았어요. 아 그랬더니 이게 웬 일이에요? 우유가 정말 맛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그런 맛이 아니었어요. 나는 한 병의 우유를 다 마셨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는 말이어요.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마셨어요. 웃으면서 우유를 마시니까 정말 맛이 좋았어요. 나는 마구 신이 났어요. 이제는 우유도 어떤 음식도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어요. 내 동생 가영이보다 더 잘 마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별명도 동생처럼 돼지가 될 거예요.

즐겁게 먹는 음식, 즐겁게 먹는 우유, 나도 이제는 달라기도 1등도 하고, 친구들과도 마음껏 놀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거울 앞에 나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몸도 튼튼해지고 머리도 좋아진다는 선생님 말씀이 생각 났어요. 어린이 여러분, 저처럼 우유를 못 마신 친구가 있으면 웃으면서 마셔 보세요. 맛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우유는 맛이 있어요. 우리 영양이 많은 우유를 많이 마셔서 튼튼하고 영리한 어린이가 됩시다.





나의 별명

청주시 청남 국민학교
4의 2 번상일

“음매, 음매”

젓소가 먹을 거 달라는 소리였다. 나는 얼른 내 키보다 더 큰 옥수수대를 들고 젓소가 있는 외양간으로 갔다.

소가 빨리 달라는 것 같았다.

나는 옥수수 대를 소에게 넘겨 주었다. 소는 먼저 나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다가 막 먹기 시작하였다.

소가 먹는 것을 바라보다가 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젓소야, 많이 먹고 우유 좀 줘. 너처럼 키도 크고 튼튼해지게.”

이렇게 중얼거리다 보니 누가 뒤에서 나의 등을 툭 쳤다.

“젓소가 엄마야? 자꾸 우유만 달라게”

“내가 언제 엄마랬니?”

나의 통명스러운 말에 동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매일 달라기에……”

“미안해”

나는 그만 동생이 시무룩해지는 모습을 보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동생이 외양간을 나가도 여전히 젓소만 바라보고 있었다.

젓소가 옥수수 대를 다 먹고 나를 바라보다가

“음매, 음매에”

하며 더 달라는 것 같이 울었다. 외양간에서 나와 짚을 가져 왔다. 우유 달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더 많이 먹었다. 다음날이었다.

“ 짹 짹 ”

참새들이 즐겁게 합창을 했다. 동생들과 같이 학교로 갔다. 자습 시간이 돌아왔다. 그런데 뒤에 앉는

민영이가

“너 키 언제 클래”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냥, 알고 싶어서”

“이젠 나도 너희들처럼 클거야. 어제 젓소하고 약속도 했는걸. 꼬마라고도 부르지 않고 키다리라고 부르게 될거야”

“어느 세월에 커”

“어느 세월이긴 어느 세월이니”

“알았다. 알았어”

민영이는 이렇게 말하고 계속 자습을 하였다. 나에게 꼬마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미웠다.

‘난 더 이상 꼬마라고 불리지 않을 거야. 꼭’

자습 시간이 지나고 세제 시간도 끝났다. 네째 시간은 실과 시간이다.

“에, 오늘은 기초 식품군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책 99쪽……”

선생님의 정다운 목소리였다.

선생님은 1군의 단백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셨다. 다음엔 2군의 칼슘을 얘기하시다 나를 바라보시며

“상일이는 우유를 많이 먹어야겠다. 그래야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지지”

“네, 선생님 말씀대로 우유를 많이 먹을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젓소하고도 약속했는걸요”

“그래, 참 잘했다.”

선생님의 말씀에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다시 선생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오늘 배운 기초 식품군을 모두 외우세요.”

“네.”

아이들은 교실이 떠나갈 듯 한 소리로 대답했다. 수업이 끝나자 민영이와 같이 집으로 가며 기초 식품군을 외었다.

“1단, 2칼, 3비, 4탄, 5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민영이와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외었다. 그리고 집에까지 왔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공부 잘했니?”

“네. 그리고 오늘은 기분이 참 좋아요. 엄마도 좋죠.”

“그래 엄마도 네가 기뻐하니깐 기분이 좋다.”

방에 들어가서도 중얼중얼 외었다.

“상일아, 그게 무슨 소리니.”

“실과 시간에 배운 거 외고 있어요. 엄마, 참 우유 좀 주세요.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대요.”

“학교에서 우유 안 먹었니?”

“그게 아니라고 키도 크고 튼튼해지려고요.”

“키가 그렇게 하루 아침에 크는 줄 아니? 꾸준히 먹어야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꾸준히 우유를 먹게 되었다.

‘이젠 꼬마라는 별명이 듣지 않기 위해 우유를 많이 먹고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어린이가 돼야지.’

외양간에서는 젓소가 배고프다는 듯 ‘음매 음매’ 하며 울고 있었다.

기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고 묻는다면

원주시 관설국교

5의 2 김 영오

어제 텔레비전에서 우유를 시냇물에 막 쏟아 붓는 모습을 보았다.

저 아까운 우유를 왜 버릴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텔레비전에서 우유를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우유가 상하니까 버린다는 것이다.

그냥 버릴거면 우유 못 먹는 나라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공평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어제의 텔레비전을 생각하면서 학교로 오는데 오늘도 매일과 같이 우유차가 세 상자의 우유를 가지고 학교로 들어왔다. 그 중에 나의 것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시간이 끝나자 으레히 당번은 아침에 가져왔던 우유를 반에서 돈을 낸 아이들의 숫자대로 가져왔다.

노는 시간에 하나 둘 우유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늘 우유 먹는 날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지난 번 선생님이 우유를 먹는 날이 적은 7월에 나를 비롯하여 성애원 모두에게 우유를 먹게 한 이외는 거의 우유를 먹는 날이 없었다.

7월달 우유를 먹을 때 선생님께서 9월달에도 계속 우유를 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너무 욕심이 많은 생각이다.

우리 반에 성애원이 5명, 모두 사주신다면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달이라도 사 주시는 선생님이 고마울 뿐이다.

요사이엔 육상운동을 하는데 선생님이 육상을 하느라 수고한다며 선생님이 잡수실 2개를 가져와 인숙이와 나에게 주신다. 왜 두개냐면 학교에서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가 선생님께 드리는 것 한개하고 선생님은 탁구를 치시기 때문에 운동선수와 함께 1개를 더 잡으시기 때문이다.

이따금 우유를 먹을 때는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사실 나는 욕상을 하긴 하지만 남보다 더 열심히 한 때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않은 내가 선생님의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꼭 선생님의 우유를 빼앗아 먹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고 싶은 우유이기에 또 선생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먹는다.

아버지 어머니 없는 고아, 배고플 때 조를 사람도 없고 주면 주는 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생활하는 나 이기에 우유 한 개란 참으로 고마운 음식이다.

비록 우유는 못 먹는다 할지라도 우유 먹게 돈 달라고 조를 부모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정말로 자식에게 필요한 부모가 될 것이다.

그 필요의 첫째는 우유를 사 먹일것.

둘째 우유 못 먹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적어도 나의 돈 버는 것의 조금을 쓸 것.

이 두 가지는 어른이 되어서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백범 김 구 선생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조선의 완전한 독립이요’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에게 혹시 누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나?”하고 묻는다면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말할 것이다.

“나의 소원은 우유를 먹는 것이지요.”라고 말이다.

오늘 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나하면 오늘이 바로 내 생일이기 때문이다.

